



**이사람** **가든호텔 제과부 과장**

**“자신의 처지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진리”**

이경춘 과장은 빵만드는 일외에도 서예, 목각, 여행 등 다양한 취미를 가졌다. 먹고살기도 바쁘는데 언제 이런 것을 즐기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그는 슈퍼맨같이 이것저것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하다거나 욕심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에 순종한다는 것은 저런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이경춘 과장을 처음 만났을 때는 걱정이 앞섰다. 한 일자로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 묻는 말에만 겨우 '예, 아니오'로 답할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후 그 생각은 기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강원도에서 태어났는 데로 시작한 그의 얘기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시냇물 흐르듯이 이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내가 이 과장이 한 말을 제대로 옮겨 적을 수 있을까.

올해 쉰다섯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과장은 명랑하고 솔직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그를 마음씨 넉넉한 친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베이커리 편집부에 독자추천 인물로 이 과장을 지명한 사람도 함께 일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아가씨'였다.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라고 생각한다. 나이의 많고 적음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과 협의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의 이런 사고방식이 인기의 비결인가 보다.

그의 신세대(?)적인 사고방식은 자식에게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들에게 자기의 미련을 부담으로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과장은 쉰다섯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솔직하고 명랑하다. 빵만드는 일만큼이나 좋아하는 그의 취미생활이 그를 여유있게 만들어 주는 비결인가 보다.

학교를 선택할 때도 자유롭게 맡겼다. 그래서 큰 아들은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농업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둘째도 전문대에서 농업관련 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은 나이 많고 적음 떠나 모두 동료라는 생각으로 생활**

북쪽이 고향인 그는 해방이 되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농사지를 땅이 변변치 못해 화전과 나무를 베서 파는 일을 주로했다. 그러나 항상 밀지는 장사였다. 추수가 끝나 봄에 빌린 장리벼 갚고나면 다음해 추수까지는 끼니도 잇기 어려웠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강원도 목호로 나왔다. 그리고 요리집에 취직을 했고 심부름을 하면서 닦치는 대로 기술을 배웠다. 그당시는 이것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배웠다. 하루는 중국요리 주방에서 솜씨좋은 기술자가 면을 뽑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유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연습을 했는데 그만 들

켜 버렸다. 그 요리사는 처음에는 꾸중을 하다가 그가 하도 배우겠다고 떼를 쓰니까 그의 등뒤에서 함께 손을 잡고 면 뽑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빵만드는 것을 보고 저 기술을 꼭 배워야겠다고 마음먹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때가 열여덟살이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기 전인 스물여섯까지 기술을 배웠다. 처음 계획은 2~3년 동안 기술을 배우고 내 장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꼬박 8년을 배웠다.

그후 제대하고는 태극당에 입사를 했다. 좀더 훌륭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태극당을

이  
경  
춘

찾아갔고 그곳에서 7년을 있었다. 그때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장인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는 2년동안 중동에 갔다왔다. 그간 모아 놓은 돈도 없고 생활의 안정도 필요해 돈을 벌 욕심으로 중동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처음 중동에 갈 때는 돈을 모아 제과점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항상 물가는 그가 번 돈보다 앞질러 있었다. 그리고는 크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2년간의 해외생활을 정리했다. 그래서 가든호텔에 입사를 했고 이곳 생활이 벌써 16년째다.

40년을 바라보는 제과경력이지만 그의 이력서는 요즘 젊은이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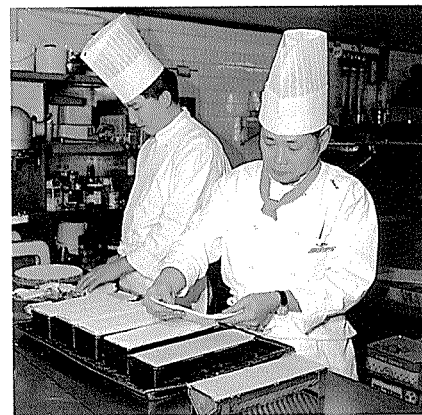
그는 자신의 제과경력 중 반 이상은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좋은 선배를 만나면 그 분 밑에서 배운다는 즐거움으로 일을 하고 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제과점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하는 식이었다.

###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살기 때문에 빵만드는 것 외에도 서예, 목작 등 취미다양

평생을 배워도 배우고 싶었던 것의 반이상을 못배우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게 그의 기본적인 생활자세다. 그래서 그는 취미도 많다. 80년부터 배우기 시작한 서예는 전통예술문화미술대상전에서 몇차례 입상을 한 실력이고 목작솜씨도 수준급이다. 산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고목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와 조각을 하기도 하고 필통, 바둑판, 제철이 등을 나무로 깎아 손수 만들 정도로 솜씨가 좋다.

또 톱연주라는 특이한 취미도 있다. 어느 날 톱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배우고 싶어 시장을 뒤져 톱을 구입하고 독학으로 익힌 솜씨다. 그가 태극당에 근무할 때는 별명이 만물박사였다.

이외에도 톱나는 대로 등산을 가기도 하고 여행도 자주 떠난다.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여행보다는 무작정 기차를 타고 가다 마음맞는 곳에 내린다. 주로는 다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오지를 찾아 다닌다. 그리고



▲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그를 마음씨 넉넉한 친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라고 생각한다.

◀ 이 과정은 제과경력 중 반 이상은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좋은 선배를 만나면 그 분 밑에서 배운다는 즐거움으로 일을 하고 또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하는 식이었다.

도 부족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베풀면서 살고 싶다. 충청북도 보은쪽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장만했다. 제과일을 그만두면 이곳에 내려가 살 계획이다. 그리고 주방에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 꾸밀 생각이다. 그곳에서 빵을 만들어 동네사람들과 나눠먹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빵만드는 기술도 가르치고 서예도 가르쳐 줄 생각이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했다. 소인은 소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 같다. 잘났다고 건방울 떨면 넘어진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을 너무 비하한다는 생각보다는 저것이 인생의 진리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는 잘 익은 과일의 단내음이 풍긴다. ☐

(글/김주희)

### 씨공 장기근속자를 찾습니다

본지에서는 한 직장에서 한결같은 자세로 평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제과인을 찾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원도우베이커리에 근무하는 제과인 중에 소개할 분이 있으면 본지 독자엽서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